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노력하면 시도 쓰고 노래도 지을수 있으며 그림도 잘 그릴수 있습니다.》

그림은 재간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신비한것이 아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그림을 잘 그릴수 있으며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수 있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들끓는 현실은 다 미술의 묘사대상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화면에 옮겨놓아서는 미술작품이 될수 없다.

묘사대상을 생동하게 표현할줄 아는 능력은 저절로 높아지는것이 아니며 오직 꾸준한 노력과 정열적인 탐구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묘사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진지한 탐구로 대상을 생동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소유하는것 역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미술작품감상능력이 없으면 훌륭한 작품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다.

미술작품감상을 통하여 화가가 작품에 어떤 내용을 담았으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를 밝혀내는 능력과 창작능력도 가지게 되며 미술지식도 빨리 습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감상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말고 미술시간은 물론 과외시간과 여러 공간을 리용하여 미술박물관, 화첩, 공원, 유원지에 있는 미술작품들을 감상하는 습성을 키워야 한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과정에는 보고 들은 사실과 이야기에서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보고 듣고 느낀 사실과 현상을 잘 다듬어서 미술적으로 표현하는것이 바로 미술창작이다.

무슨 일이나 다 그러하듯이 미술창작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작은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깊은 사색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사실과 현상을 보아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하며 탐구하고 사색하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미술학습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미술에 대한 넓은 지식과 표현능력, 감상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그래야 다방면적지식을 소유한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회　　화

정물화

우리 생활과 가깝고 친근감을 주는 물건들을 가지고 뜻이 깊은 정물화를 그리자. 물건들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그려도 좋고 표현의도에 맞게 정물을 짜놓고 그려도 된다.

같은 정물도 보는 자리에 따라 형태와 느낌이 다르다는것을 잘 알고 그리는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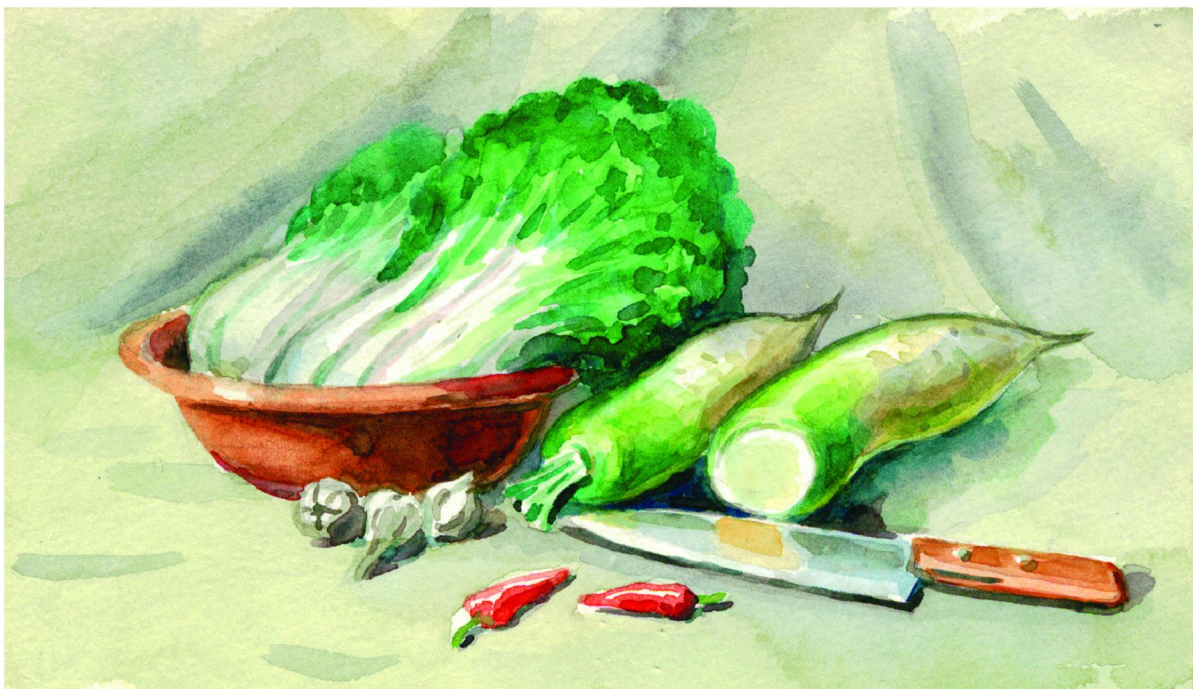
형태를 그릴 때에는 묘사되는 물건 하나하나가 화면전체에 속한 한 부분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한다.

색칠할 때에는 물체들의 본색의 차이도 가려보고 빛에 의하여 색갈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관찰하여 묘사하여야 한다.

정물(수채화)

김정일화(조선화 1997년) 송시엽 작

립체감이 나는 빨간 꽃, 금시 굴러떨어질듯 한 물방울, 생신한 푸른 잎 등은 마치 실물을 보듯이 생동하여 사람들을 숭고한 세계에로 이끌어간다.

김장감(수채화)

학용품(수채화)

소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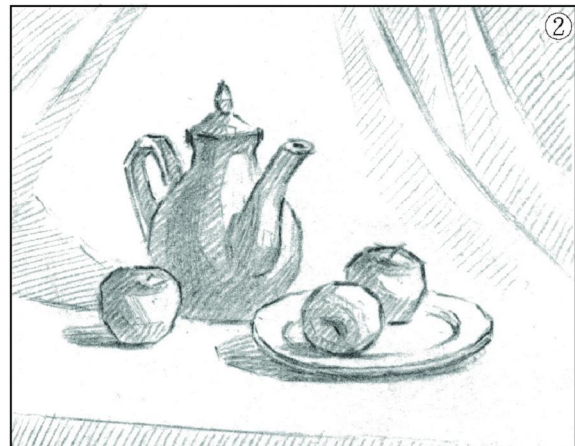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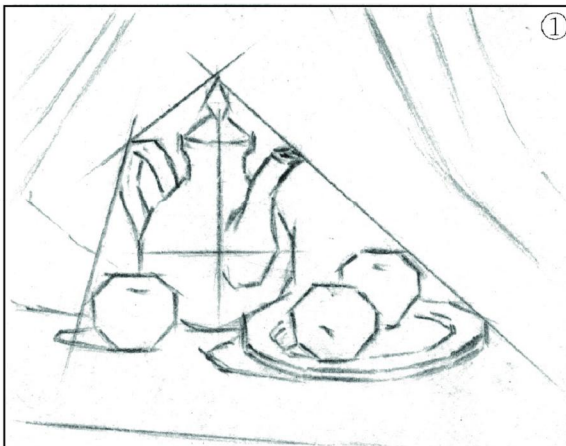
소묘란 연필이나 콘테, 목탄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단색으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소묘는 미술적표현의 기초로 되는것만큼 미술에서 매우 중요하다. 소묘를 통하여 묘사대상을 정확히 보는 능력과 그를 실감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수 있다.

소묘에서는 대상을 잘 관찰하여 형태를 립체적으로 정확히 잡고 립체감과 색감, 질감, 공간감을 생동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소묘의 순차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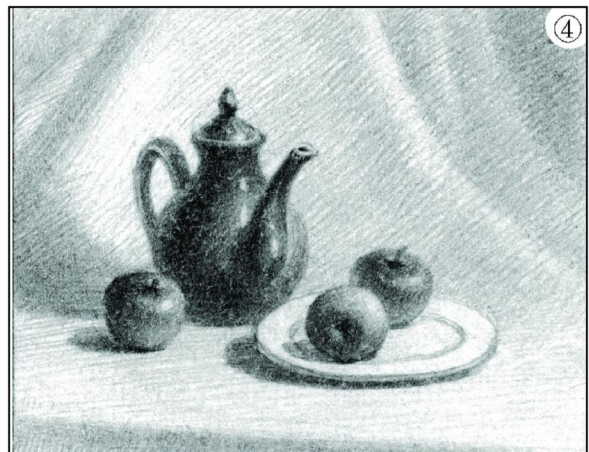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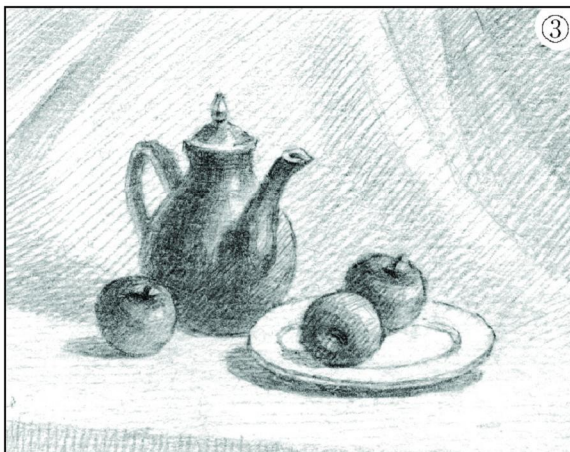
①

②

유화 《새우》에서는 방금 잡은듯 한 새우들을 화면의 왼쪽우에서부터 대각선방향으로 배치하여 운동감이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구성하였다.

수많은 새우들을 그렸지만 다양한 형태와 색갈로 표현함으로써 어느 하나도 꼭 같은것을 찾아볼수 없다. 특히 더운색과 찬색을 잘 대조시킴으로써 화면에서 기본묘사대상이 두드러지게 안겨오도록 하였다.

새우(유화 1980년)
김병섭 작

① 화면에 가로세로 중심선을 긋고 묘사대상의 범위를 설정한 다음 가선으로 대체적인 륜곽을 잡는다.
② 부분의 위치와 형태를 잡으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구체화하고 명암을 갈라준다.
③ 명암묘사를 심화시키면서 대상을 립체적으로 빚어나간다.
④ 립체적으로 든든히 빚으면서 색감, 질감, 공간감을 표현하여 그림을 완성한다.

화조화

단붓질로 힘있게 그려야 한다.

참대

참대그리기순서

① 기본줄기를 그린다.
② 기본줄기에 가지를 붙인다.
③ 매듭을 처리하고 잎들을 가지에 붙여준다.

김진우는 1868년에 태여나 1950년까지 활동한 화가이다. 탄광에서 일하다 3.1인민봉기때 서울에서 반일독립운동을 하였다. 1928년에 중국에 망명하여 투쟁하다 일제에게 체포되여 15년간 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그는 감옥에서 절개를 굽히지 않을 결심을 참대그림에 담기 시작하였는데 결국 참대그림에서 당대 제일인자로 되였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벌렸고 전쟁시기 놈들에게 체포되여 희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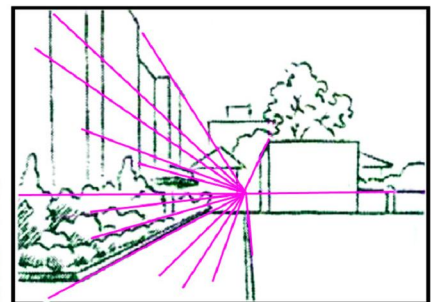
참대(조선화 20세기초) 김진우 작

참새그리기순서
새우
게

풍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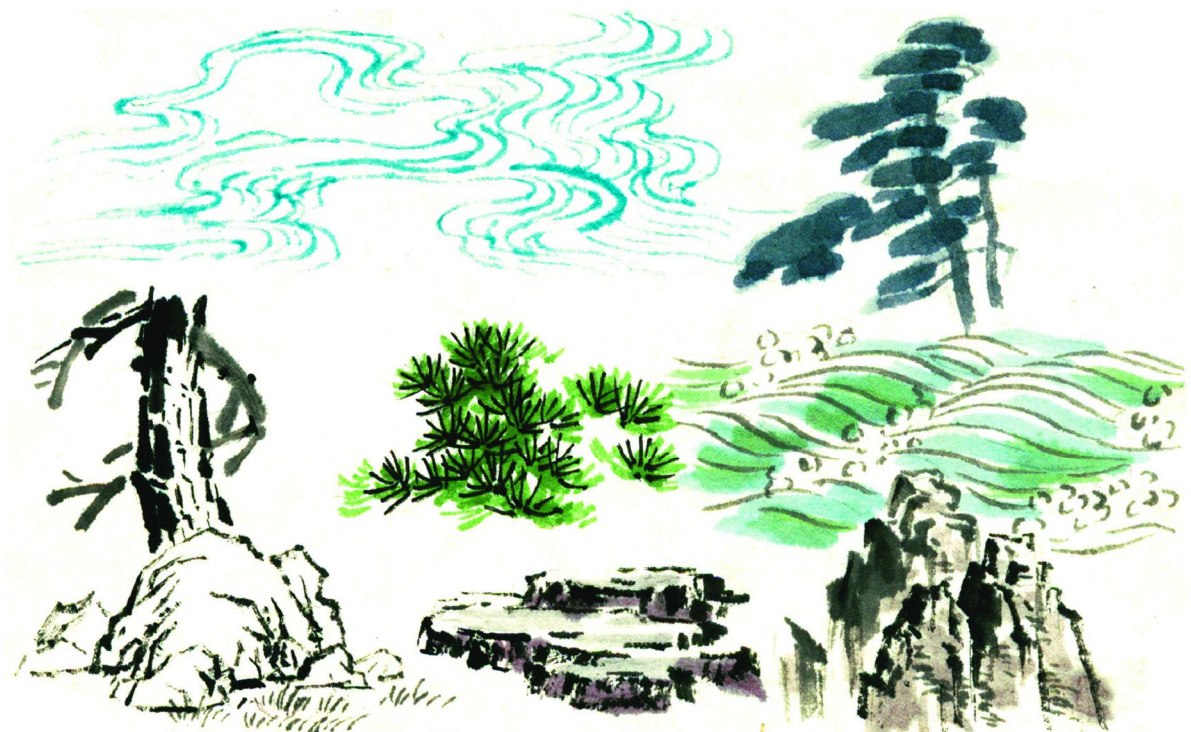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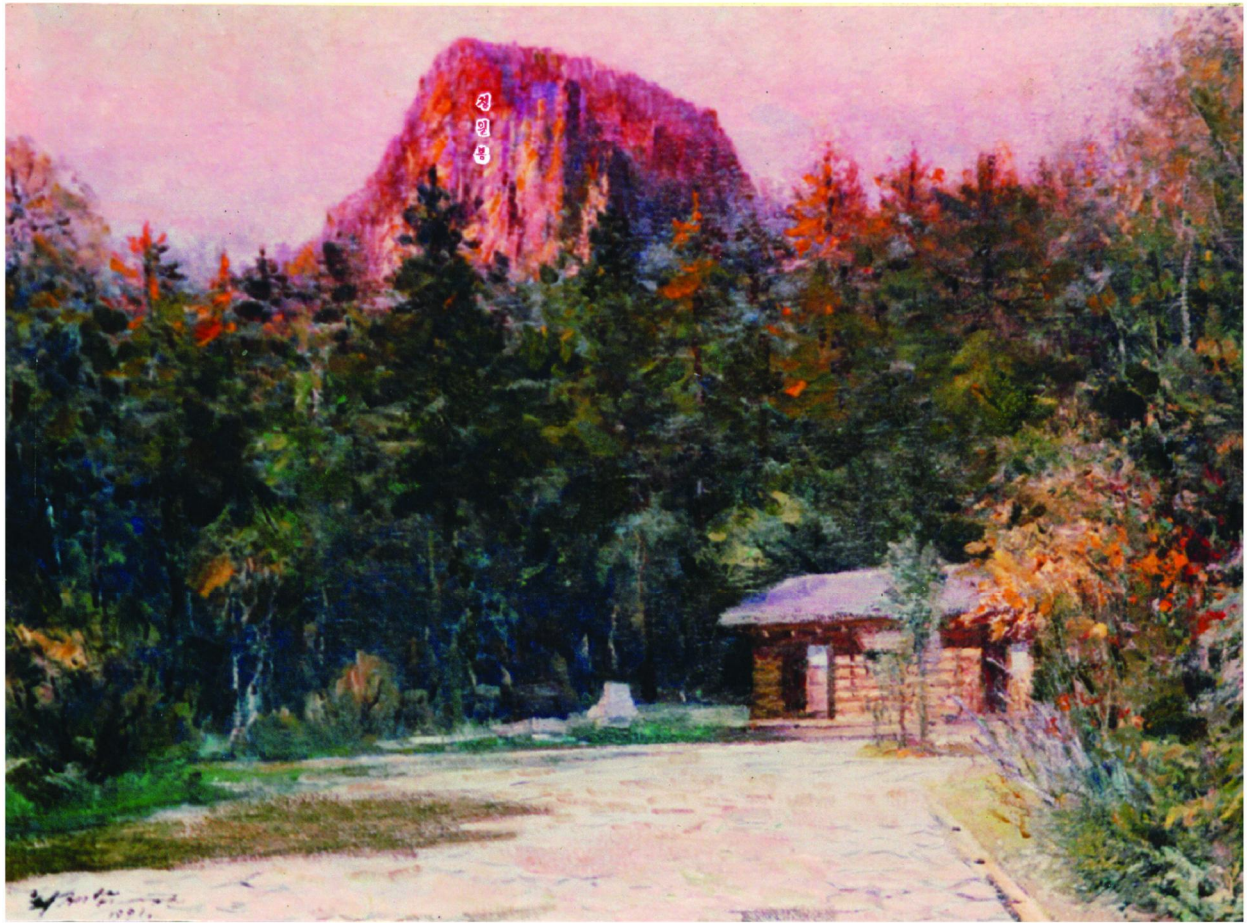
풍경화는 자연의 한 부분을 그린 그림인것만큼 공기와 바람, 빛이 느껴지고 생명이 살아움직이는듯이 생동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대상의 형태적특징과 호상관계, 빛과 거리에 따르는 색의 변화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학교풍경(수채화)

온정리풍경(수채화 1977년) 정영식 작

풍경화의 형태그리기에서는 시점에 맞게 지평선을 설정하고 투시관계에 따르는 방향선들을 제대로 잡아주어야 대상의 형태가 정확해진다.

계절은 바뀌여도(조선화 1992년) 안문원 작

우의 그림에서는 계절이 바뀌여 눈바람 사나운 추운 겨울이 왔어도 소나무의 푸른빛과 억센 기상은 변치 않는다는것을 근경에 배치한 나무와 원경의 눈덮인 바위산을 대조시켜 잘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묘사대상에 따르는 여러가지 표현방법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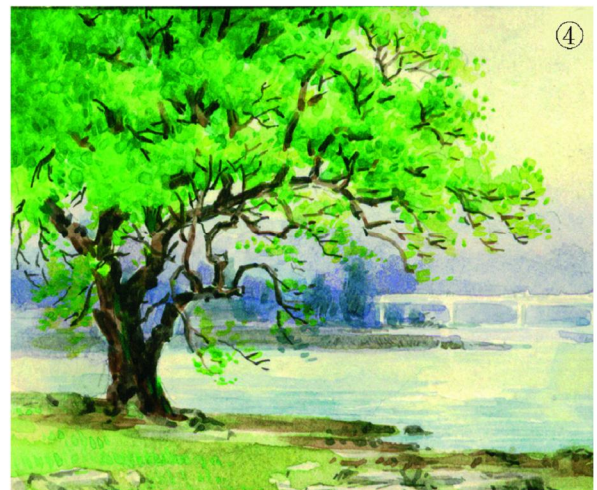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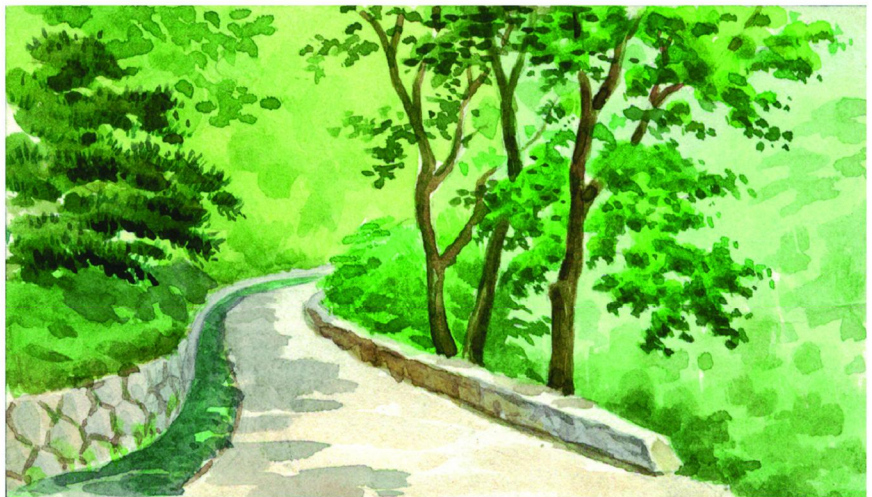
조선화의 여러가지 표현방법

정일봉의 아침(유화 1997년) 최재남 작

유화 《**정일**봉의 아침》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정일**봉의 장엄한 모습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고향집을 가을아침의 해돋이분위기로 정서있고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조선화 풍경 그리는 순차

못가의 저녁(조선화 1992년) 김수동 작

사적지로 가는 길(수채화)

① 연필로 초안을 그린다.
② 초안을 본화면에 옮겨뜨고 먹선을 긋는다. 색선으로 그을수도 있다.
③ 대상의 본색을 찾아 엷게 초벌 칠한다.
④ 재벌 칠하면서 대상을 립체적으로 그려나간다.

내금강의 아침(조선화 1970년) 문화춘 작

화가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그대로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이 꽃펴나는 참다운 인민의 금강산, 락원의 금강산으로 형상하였다.

작품의 이러한 형상은 밝고 선명하며 진한 색채로 더욱 강조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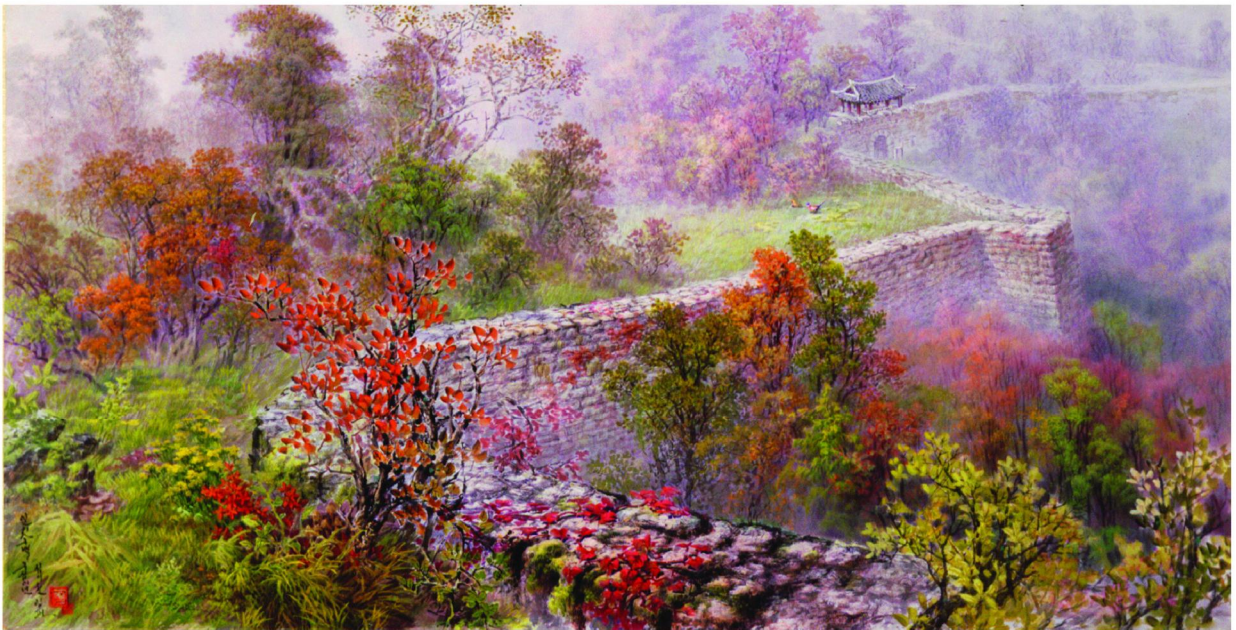
가을풍경(수채화 1979년) 한수진 작

달밤의 기러기(조선화 20세기) 리도영 작

리도영은 1884년에 태여나 1933년까지 활동한 화가이다.

그는 산수, 인물, 화조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그림을 잘 그렸으며 일제강점시기 민족미술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달밤의 기러기》, 《사슴》, 《송학》, 《매화》 등을 들수 있다.

《달밤의 기러기》는 검푸른 달, 바람에 날리는 갈대, 소란스럽게 날아드는 기러기떼, 인적이 없는 황량한 들판을 통하여 나라 잃은 당시 우리 민족의 애달픈 심정을 잘 표현하고있다. 수많은 기러기를 그렸지만 어느 하나도 같은것이 없다.

대백산성의 가을(조선화 1992년) 림파 작

인물화

일하거나 움직이는 전신모습을 그리자.

인체의 비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성이 있다.

움직이는 사람을 그릴 때에는 정지상태의 기본형태와 비례관계를 생각하면서 먼저 움직임과 비례관계를 대략 맞춘 다음 점차 형태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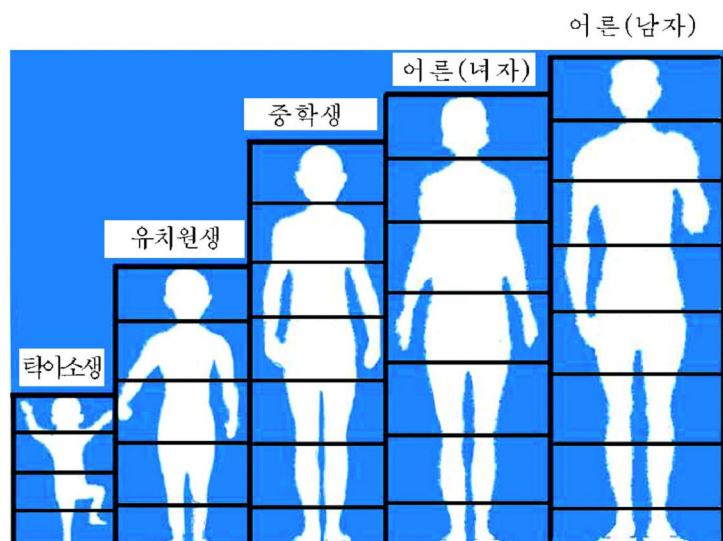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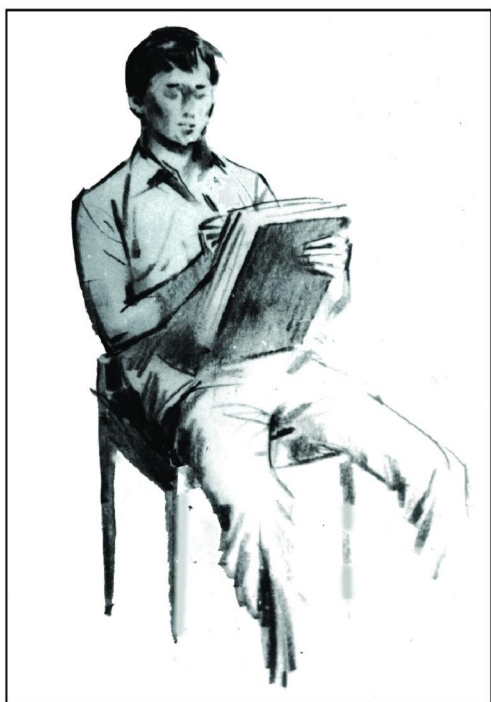
머리, 몸통, 어깨, 팔, 다리 등은 운동한계가 있으며 운동할 때 한 부분이 움직이면 련관된 다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는것만큼 그 변화를 잘 표현하여야 한다.

미술실에서(조선화)

온몸의 비례

몸의 비례는 보통 머리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비례를 잴 때에는 인체의 일반적인 비례를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차이나는 특징을 잘 관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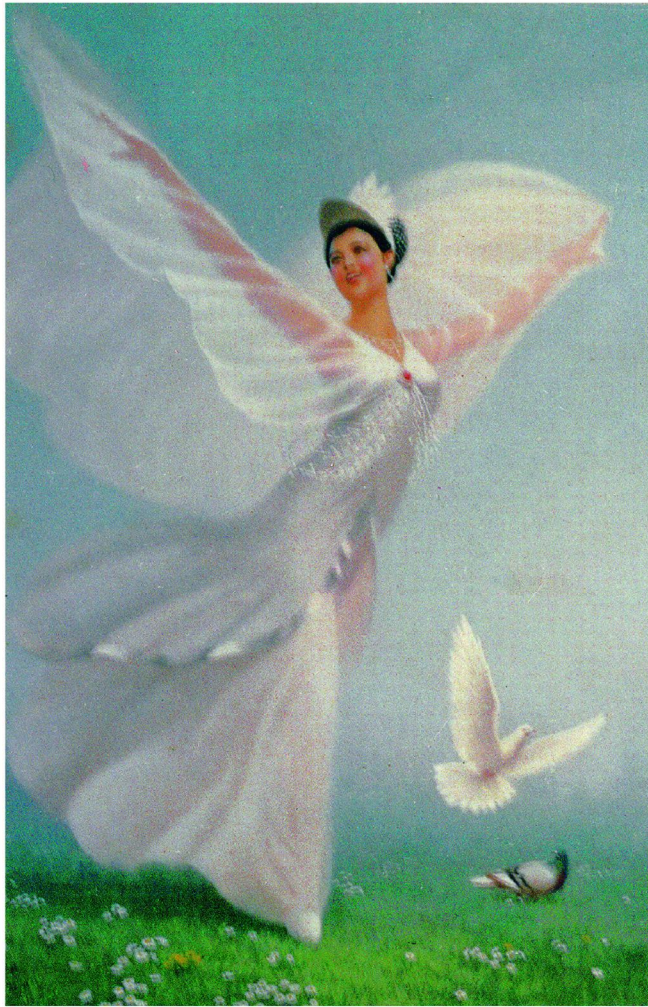
속사

열중(수채화 1988년) 박진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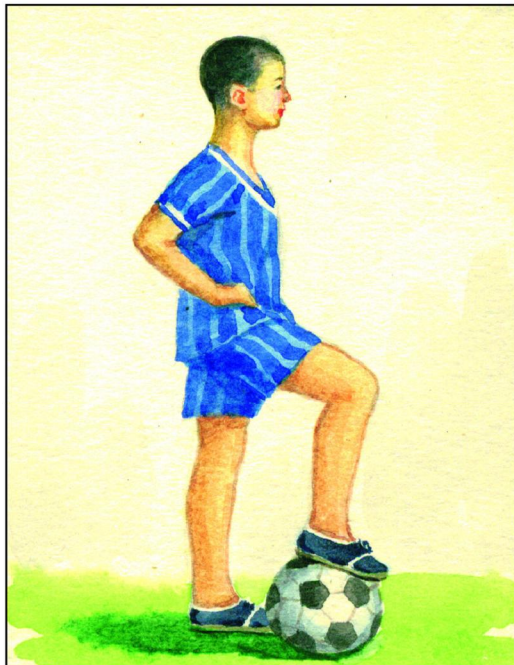
쉴참에(유화 1958년) 송찬형 작

소년단원(수채화)

적후에서의 최현동지(조선화 1988년) 강훈영 작

우리 동무(수채화)

녀동무(수채화)

비둘기춤(조선보석화 1992년) 신봉화 작

우리 학급 축구선수(수채화)

춤(조선화 1958년) 김용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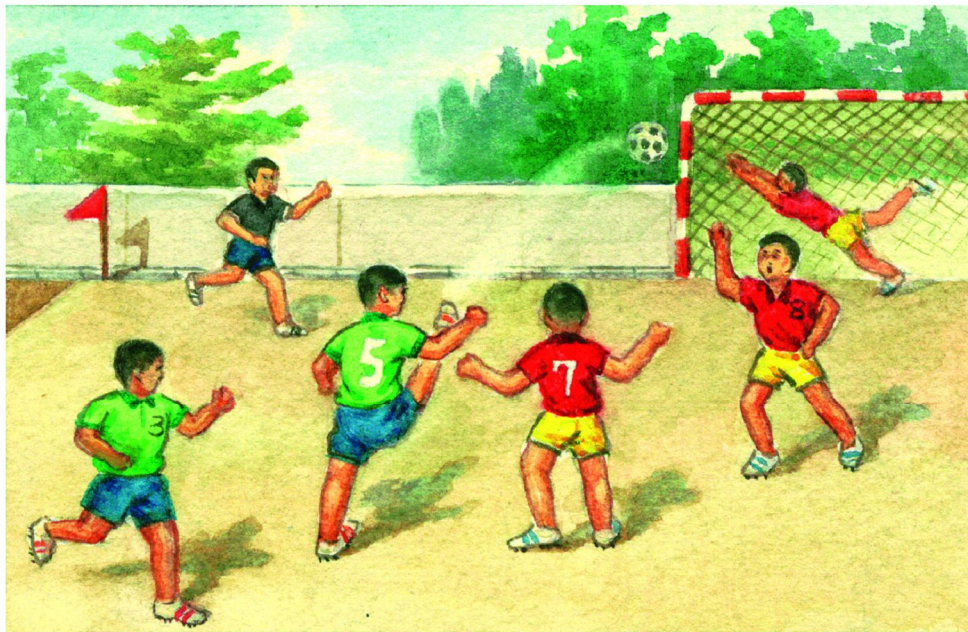
춤추는 한순간의 모습을 잡아 간결하고 탄력있는 세련된 먹선으로 재치있게 그렸다. 화면에는 무용수와 북만 그렸지만 춤추는 환경이 느껴진다. 피는 종이의 성질을 리용하여 먹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얼굴과 허리에만 색을 입혀 력점을 주었다.

이 작품은 제6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주제화

우리들의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모습을 주제화로 그려야 한다.

무심히 스쳐보내는 생활도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감동을 주는것이 많다. 그러므로 언제나 생활을 깊이 연구하여 이야기거리를 찾아내고 화면에 표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웅변모임(수채화)

축구경기(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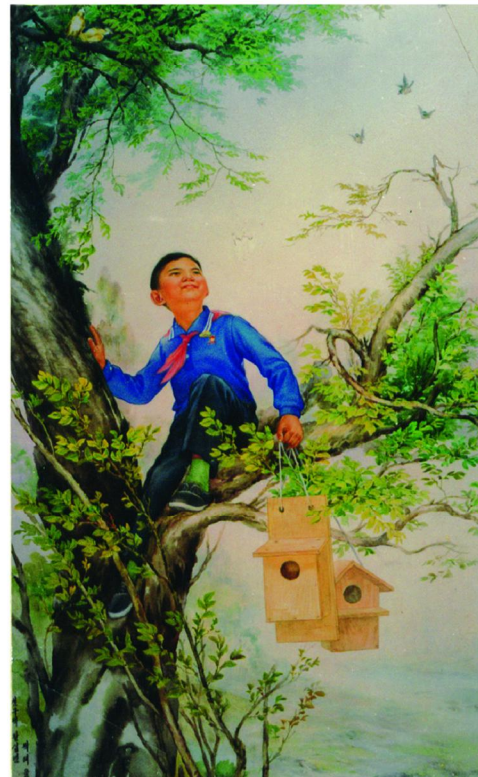
수령님께서 오신 밤(조선화 1979년) 석례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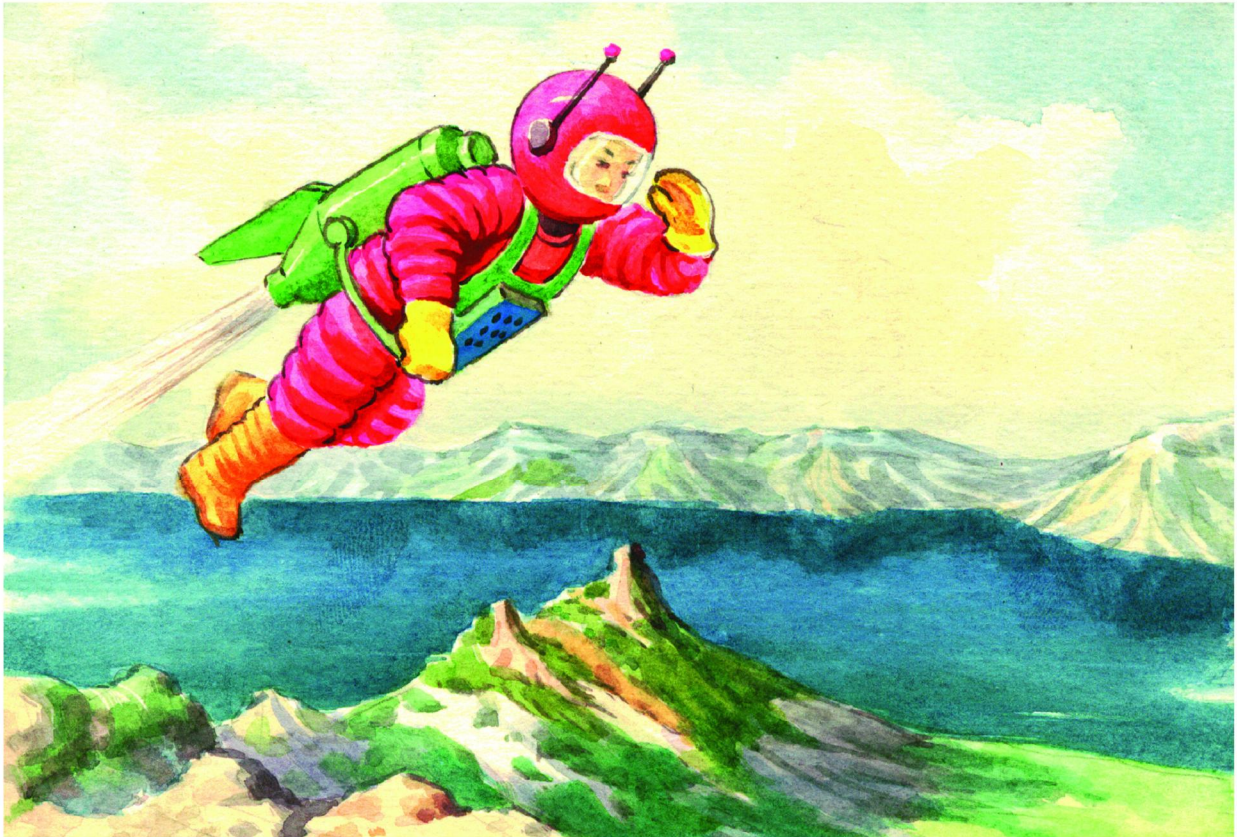
꼬마선전대(수채화)

소년단원 나의 동무(유화 1975년) 박세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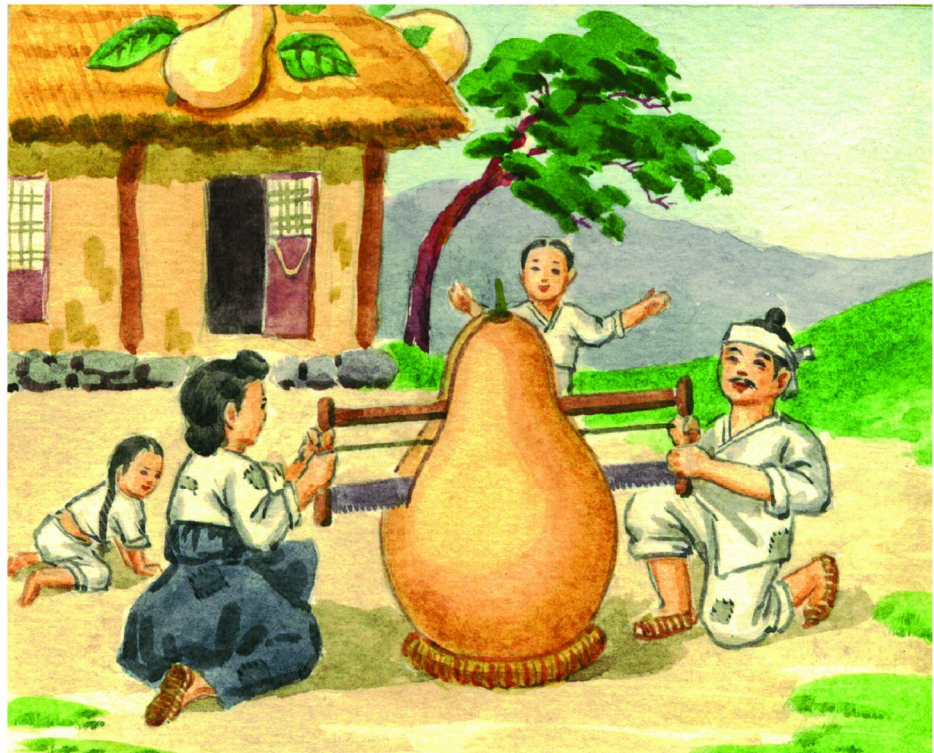
화가는 병원에 입원한 학급동무의 학습을 하나하나 방조하기 위하여 병원에 찾아가 저녁 늦게까지 배운 내용을 열심히 가르쳐 주고있는 소년단원의 아름다운 소행을 그림에 담고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어린 동생을 타일러(수채화)

새들이 날아든다(조선화 1980년) 박태을 작

상상화

책에서 본 인상깊은 장면과 재미나는 옛이야기, 아름다운 꿈을 상상화로 그리자.

백두산탐험(조선화)

흥부네 집 경사(조선화)

상상화에서 지난날의 일을 더듬어 그릴 때에는 그때 사람들의 옷차림새, 머리단장, 생활모습들을 사실그대로 그려주어야 하며 앞날의 꿈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고있는 환상을 잘 표현하여야 한다.

락동강할아버지(조선화 1966년) 리창 작

딸(유화 1966년) 민병제 작

주막(조선화 18세기) 신윤복 작

신윤복은 18세기의 이름난 풍속화가이다. 그는 김홍도, 리인문과 더불어 18세기 우리 나라 미술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웠다. 신윤복의 작품들에서는 썩어빠진 봉건통치배들과 중들의 더러운 행실이 공개적으로 비판되고있으며 근로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여러모로 풍부하게 반영하고있다. 그는 이름난 화가였지만 봉건통치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이러한 그림을 그린것으로 하여 도화서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신윤복의 대표작으로는 《단오놀이》, 《주막》, 《풍악놀이》, 《배놀이》와 같은 풍속화들을 들수 있다. 그는 풍속화뿐아니라 풍경화와 동물화도 잘 그리였다.

량반과 농민(조선화 18세기) 김득신 작

김득신은 18세기에 활동한 풍속화가의 한 사람이다.

도화서 화원의 가정에서 태여나 자신도 도화서의 화원이 되여 주로 풍속화를 많이 그리였고 풍경화, 동물화도 적지 않게 그렸다.

김득신의 대표작으로는 《량반과 농민》, 《마당질》, 《신선도》, 《범》 등을 들수 있다.

지난날의 용해공들(조선화 1980년) 김성민 작

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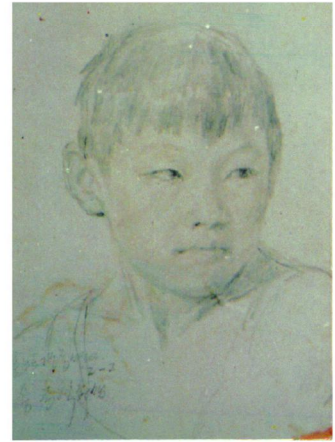
화가는 현지취재중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한 공훈용해공의 해방전 이야기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작품을 창작하여 지난날 용해공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창작과정에 초안은 여러번 변하였고 제목도 달라졌다. 처음의 제목은 《겸이포》라고 하였다.

화가는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자료도 취재하면서 초안을 무르익혀나갔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하나하나의 모습은 수많은 습작을 거쳐 완성되였다.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오늘의 로동자들속에서 지난날의 로동자들을 위한 모습을 찾는다는것은 헐치 않았다.

화가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작품은 완성되였으며 국가미술전람회에서 금메달을 받게 되였다.

강철의 전사들(조선화 1968년) 최계근 작

조 각

환 각

보람찬 학교생활을 내용으로 환각을 만들자.

인물조각에서는 대상을 립체적으로 빚어나가면서 외적인 아름다움과 품고있는 내면세계까지도 나타내야 한다.

만들려는 내용과 장면이 정해지면 운동감, 비례, 특징, 표정 등을 잘 연구하여 립체감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

축구선수(소조)

불굴의 어린 투사 김금순동무
(석고조각 1968년) 조원석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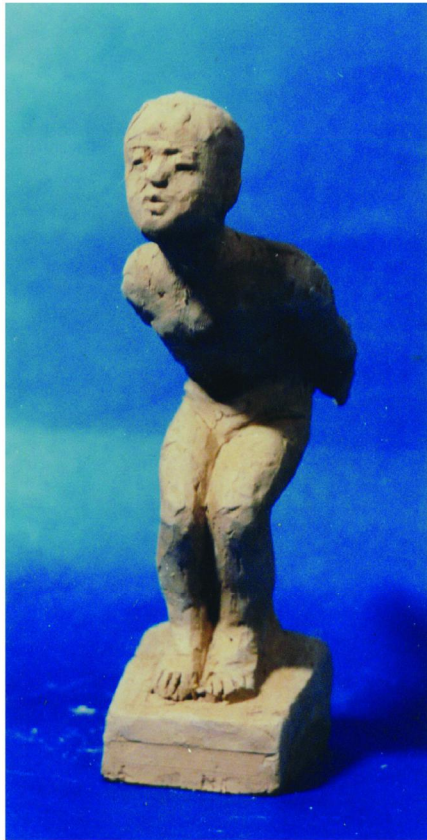
《축구선수》에서는 공을 몰고 공격하는 축구선수의 순간동작을 잘 포착하여 립체감이 나게 빚었다.

《불굴의 어린 투사 김금순동무》는 일제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싸운 어린 투사의 투쟁모습을 조각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몸자세, 얼굴표정, 손과 발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환각에서는 대상의 앞면, 옆면, 뒤면까지도 립체적으로 다 묘사된다.

수영(소조)

대를 이어(석고조각 1988년) 김창식 작

《대를 이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군상형식으로, 《보천보의 밤》에서는 달리는 순간의 동작을 운동중심에 맞게 잘 표현하였다.

상봉(석고조각 1965년) 조숙녀 작

《상봉》에서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항일혁명투사와 딸이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모습을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하여 잘 표현하였다. 조각에서는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는것이 특징이다.

보천보의 밤(석고조각 1986년) 배병선 작

조각 《종살이》는 해방전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있다.

작품은 추운 겨울날 강가에서 지주놈집의 빨래를 하다가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고있는 어린 소녀의 불쌍한 모습을 통하여 지난날 우리 인민들이 겪은 피눈물나는 생활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해방전 우리 인민들의 쓰라린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한다.

환경은 묘사되지 않았지만 주인공의 얼굴표정과 자세, 옷차림새와 빨래방치 등을 통하여 추운 겨울날 강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종살이(석고조각 1963년) 김재현 작

천리마작업반장(동조각 1959년) 송영백 작

《종살이》는 석고로 만든 조각우에 색을 입힌 작품이다. 조각에서는 석고에 색을 입혀 동이나 돌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것을 **착색**이라고 한다.

휘거선수(석고조각 1966년) 강환룡 작

물동이춤(나무조각 1985년)
김성시 작

생활환경으로서의 조각

아래의 조각은 만수대예술극장의 장식조각 《눈이 내린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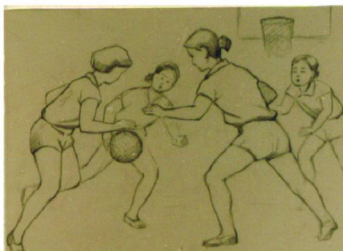
평양시를 비롯한 우리 나라 도시들의 공원과 거리들에 가면 이런 조각들을 많이 보게 된다.

지금은 조각이 미술박물관이나 집안의 테두리를 벗어나 야외에도 많이 세워져 사람들을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고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꾸려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앞으로 그 범위와 역할은 더욱 확대될것이다.

부각에 대한 지식

부각은 평면에 형태를 돋을새김하는 조각형식이다. 그러므로 부각은 조각과 회화의 특성을 다 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다.

부각은 그 살붙임에 따라 높은 부각, 보통부각, 낮은 부각으로 나누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정된 두께안에서 대상의 립체를 함축하여 표현한다.

롱구경기(소조)

부각에서는 흙붙이기를 될수록 얇게 하면서 대상이 가지고있는 립체감이 충분히 느껴지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부각의 깊이와 공간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인물의 크기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며 형태와 운동감을 부각으로 표현하기 쉬운 각도에서 대상을 잡아 화면에 넣어야 한다.

부각소조과정

①

②

③

④

⑤

① 종이에 연필로 초안을 그린다.
② 흙판을 만든다.
③ 조각칼로 흙판에 형태를 옮겨그린다.
④ 부각의 높이를 정하고 부각면 전반의 효과를 보면서 흙을 붙여나간다.
⑤ 전체의 균형을 보면서 세부묘사를 하여 완성시킨다.

용해공들(석고조각 부분 1977년) 김인수 작

부각석고뜨기과정

소조로 만든 부각은 마르면 트고 부스러지거나 깨지기 쉬우므로 보관하거나 작품전시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흙으로 빚은 부각은 석고를 옮겨떠서 다루기 편리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부각석고뜨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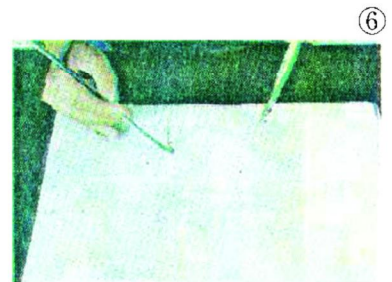
① 석고를 묽게 타서 흙부각판우에 골고루 초벌바르기를 한다.

② 초벌바르기를 한 석고판테두리와 전면에 쇠줄을 놓고 석고물을 1.5cm의 두께로 재벌 바른 다음 석고가 굳으면 흙을 파낸다. 이렇게 하면 부각걸형이 된다.

③ 걸형에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내고 마른 다음 비누물칠을 한다. 그래야 걸형과 작품이 잘 떨어질수 있다.

④ 걸형속에 석고물을 초벌로 바르고 쇠줄을 깐 다음 석고물을 다시 붓는다.

⑤ 석고가 굳으면 망치와 끌로 조심스럽게 걸형을 까낸다.

⑥ 손상된 부분과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을 수정한다.

⑥

⑤

④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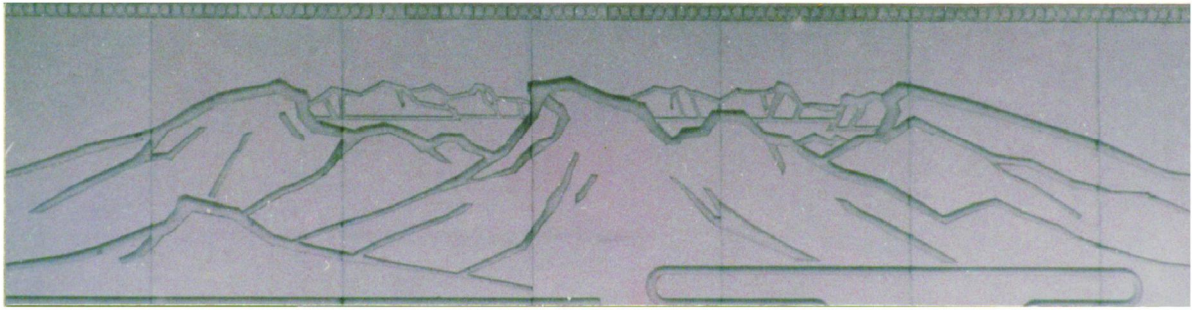
부각형식의 다양한 적용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격렬》부분(1967년) 집체 작

부각은 기념비미술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용된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서는 인물들이 낮은 부각으로부터 점차 높은 부각, 환각으로 형상되였으며 5.1경기장 장식조각 《탁구》와 《레스링》은 보통 부각형식으로 되여있다. 그리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의 장식무늬들은 돌부각으로 되여있으며 《당창건기념탑》부각은 붉은기를 배경으로 군상들이 동조각으로 형상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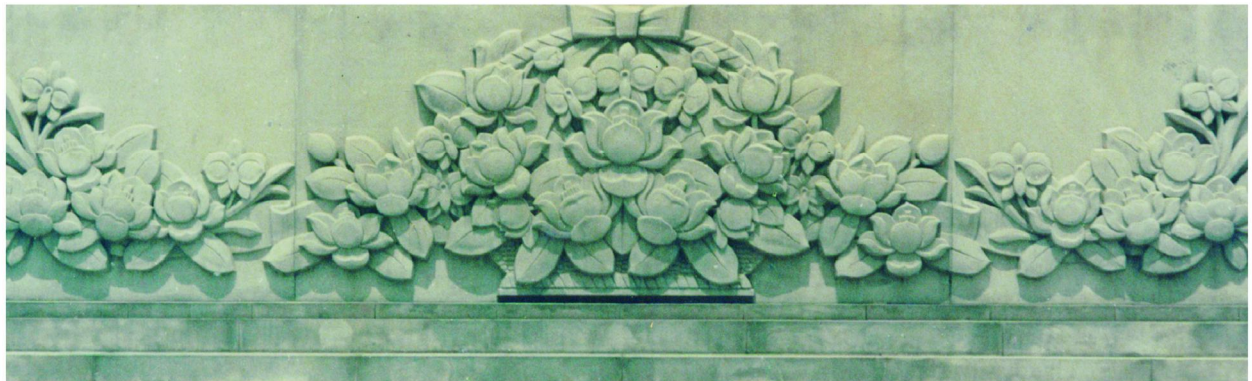
탁구(5.1경기장 장식부각)

레스링(5.1경기장 장식부각 1989년) 집체 작

백두산(개선문 장식조각 1982년) 집체 작

당창건기념탑부각(1995년) 집체 작

주체사상탑돌문장식부각

개선문장식부각(1982년) 집체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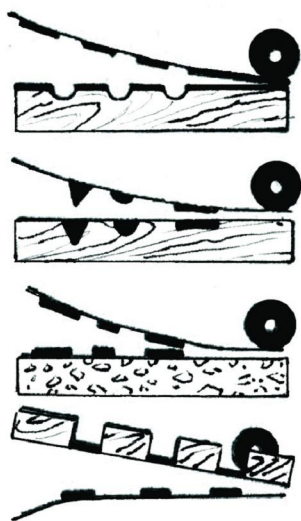
주체사상탑기단장식부각(1982년) 집체 작

출판미술

판화(단색판화)

아름다운 풍경을 단색판화로 형상하자.

판화는 판재료의 성질과 새기는 방법, 색감의 종류와 색감 올리는 방법, 종이의 성질과 찍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그러므로 판화에서는 판새기기로부터 찍는 전 과정에서 이러한 특성을 잘 생각하여야 한다.

밀영(비닐판화)

판화의 종류

판화는 찍음판을 만들어 찍어내는 그림으로서 재료와 기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눈다.

- 판재료에 따라서 나무판화, 비닐판화, 돌판화, 금속판화로
- 판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돋을판, 오목판, 평판, 공판으로
- 색수에 따라 단색판화, 여러색판화로
- 색감에 따라 유성판화와 수성판화로 나눈다.

① 돋을판; 나무판화에 많이 적용되는데 찍히는 부분이 도드라졌다.

② 오목판; 금속판화에 적용되는데 오목한 부분에 색감이 들어가 찍을 때 이것이 종이에 묻는다.

③ 평　판; 돌판화에 적용되는데 판을 새기지 않고 그림에만 색이 묻게 한다.

④ 공　판; 천에 무늬찍기를 할 때 적용하는데 채불사이로 색감이 내리게 되여있다.

판화형태의 단면그림

주체사상탑풍경(비닐판화)

인민대학습당이
보이는 풍경
(비닐판화)

오목판화에 대한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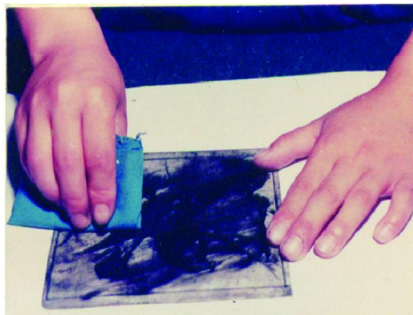
오목판화는 굳은 비닐판이나 동판, 아연판, 셀룰로이드판 등에 날카로운 판화용바늘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 판면이 패우게 한 다음 패운 부분에 인쇄잉크를 먹이고 프레스로 찍어낸다.

이 판화는 섬세한 점과 선으로 표현하기때문에 명암의 다양한 질음새를 얼마든지 나타낼수 있다.

그리고 판에 올린 인쇄잉크를 닦아내는 방법과 찍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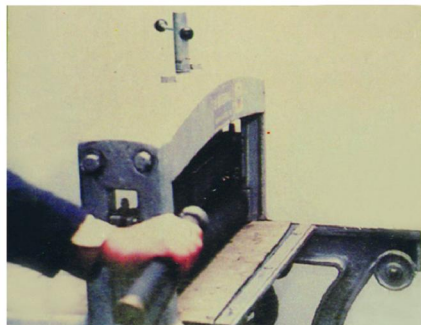
삼지연못가(비닐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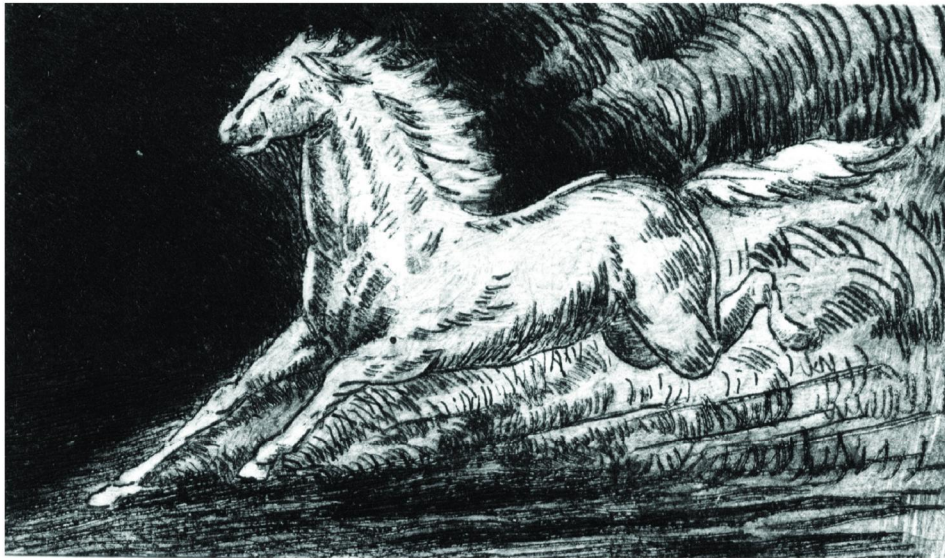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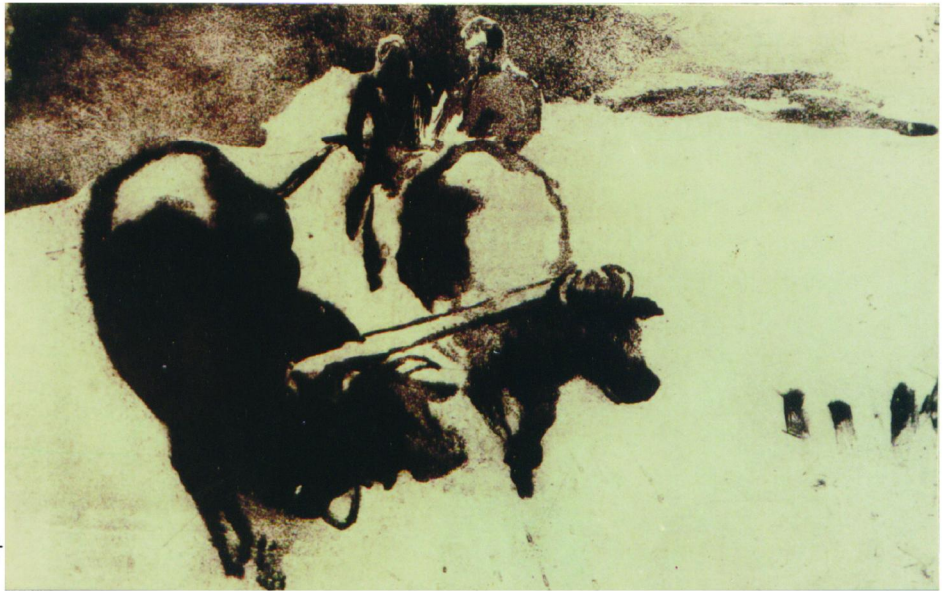
오목판화제작과정

①

오목판화는 인쇄잉크와 같은 유성색감으로 찍는다.

① 뾰족한 바늘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 그림을 새긴다.
② 판면에 색감을 먹인 다음 찍히지 않은 부분의 색감을 천으로 닦아낸다.
③ 프레스로 찍어낸다.
④ 완성된 작품

②

③

④

밭갈이(동판화
1963년)
함창연 작

달리는 말
(셀룰로이드판화)

강가에서(비닐판화)

도 안

평면구성

모든 물체들은 형태와 색갈에서 다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특징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모양과 색갈로 바꾸어 보기 좋은 평면구성을 하자.

평면구성은 단순화와 구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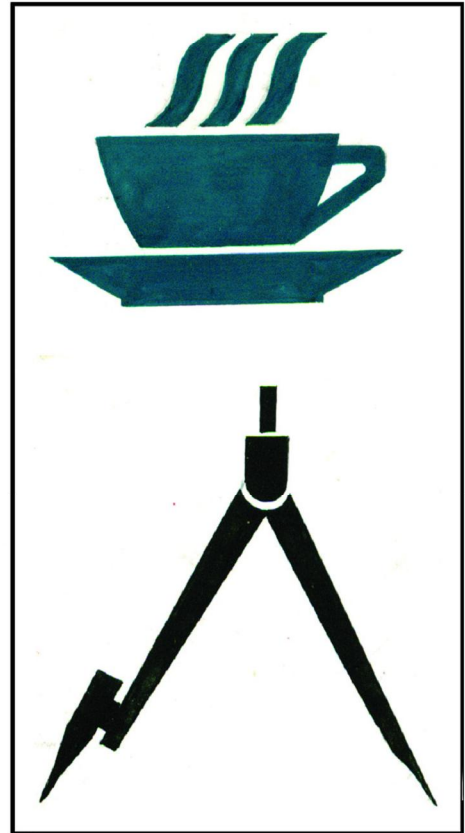
□ 단순화

평면을 구성하자면 무엇보다도 대상의 형태와 색갈을 미술적으로 가공하여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물체의 본래모양과 색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아무러한 감흥도 줄수 없기때문이다.

자연에 있는 수많은 물체들은 그 형태와 색갈이 다양하고 복잡한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적인것들이 이어지거나 크고작은 변화들이 법칙적으로 꾸며진것을 발견할수 있다. 또한 인간의 창조물가운데는 원, 3각형, 6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많은데 이러한 형태들에서 우리는 그 기능으로부터 이루어진 아름다움을 발견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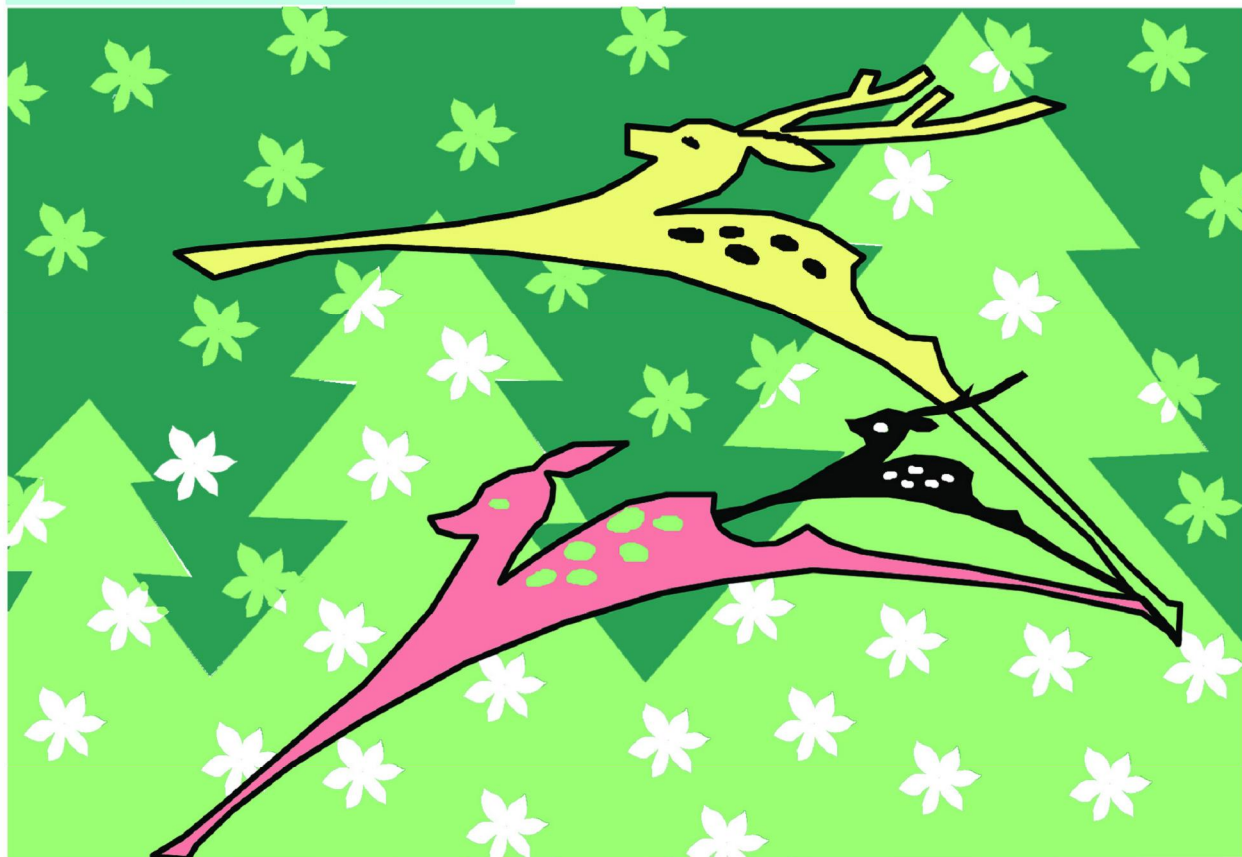
대상의 특징을 살리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는 방법으로 형태와 색을 미술적으로 아름답게 가공하는 과정을 **단순화**라고 한다. 단순화한 대상을 소재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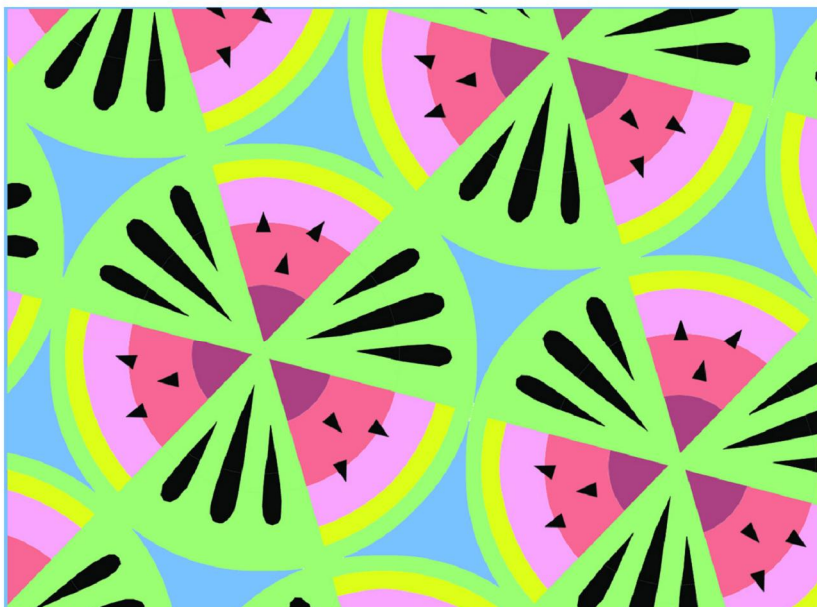
인공물의 단순화

자연물의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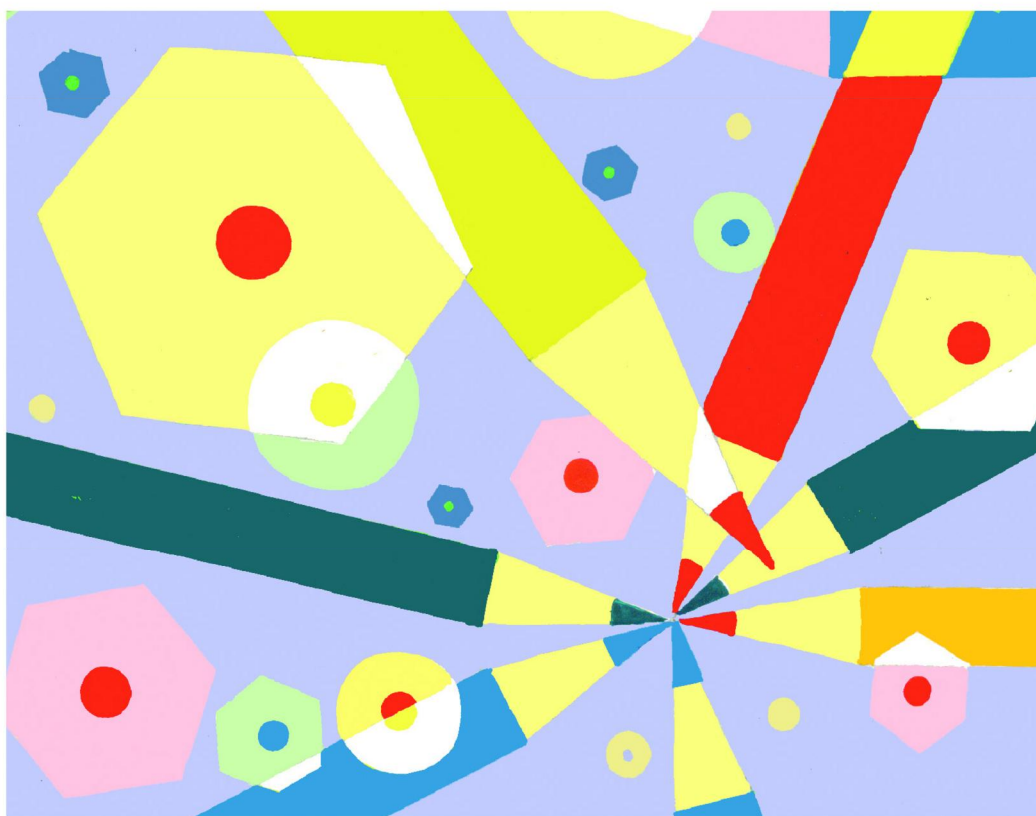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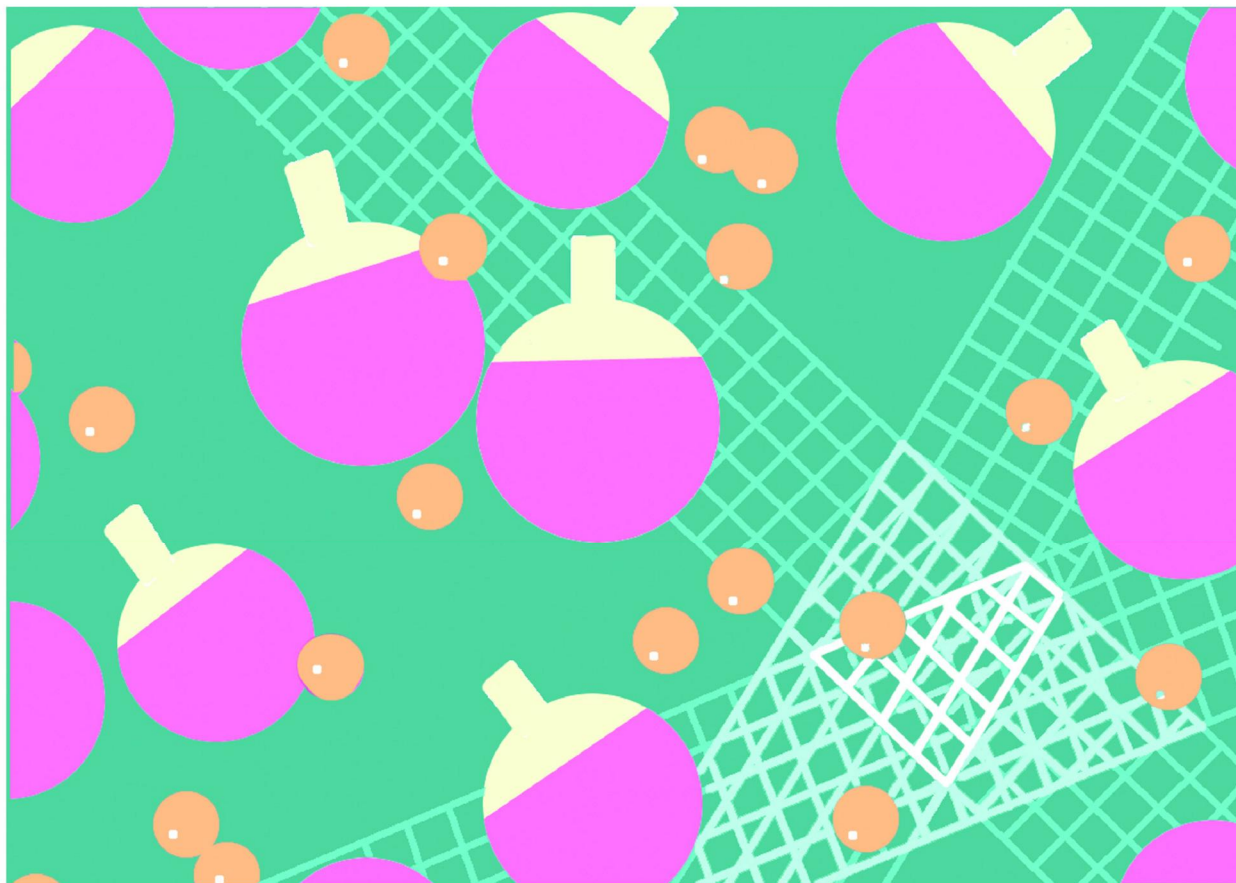
□ 평면구성

구성에서는 변화와 통일을 보장하면서 구성미를 이루는 요소들인 률동, 균형,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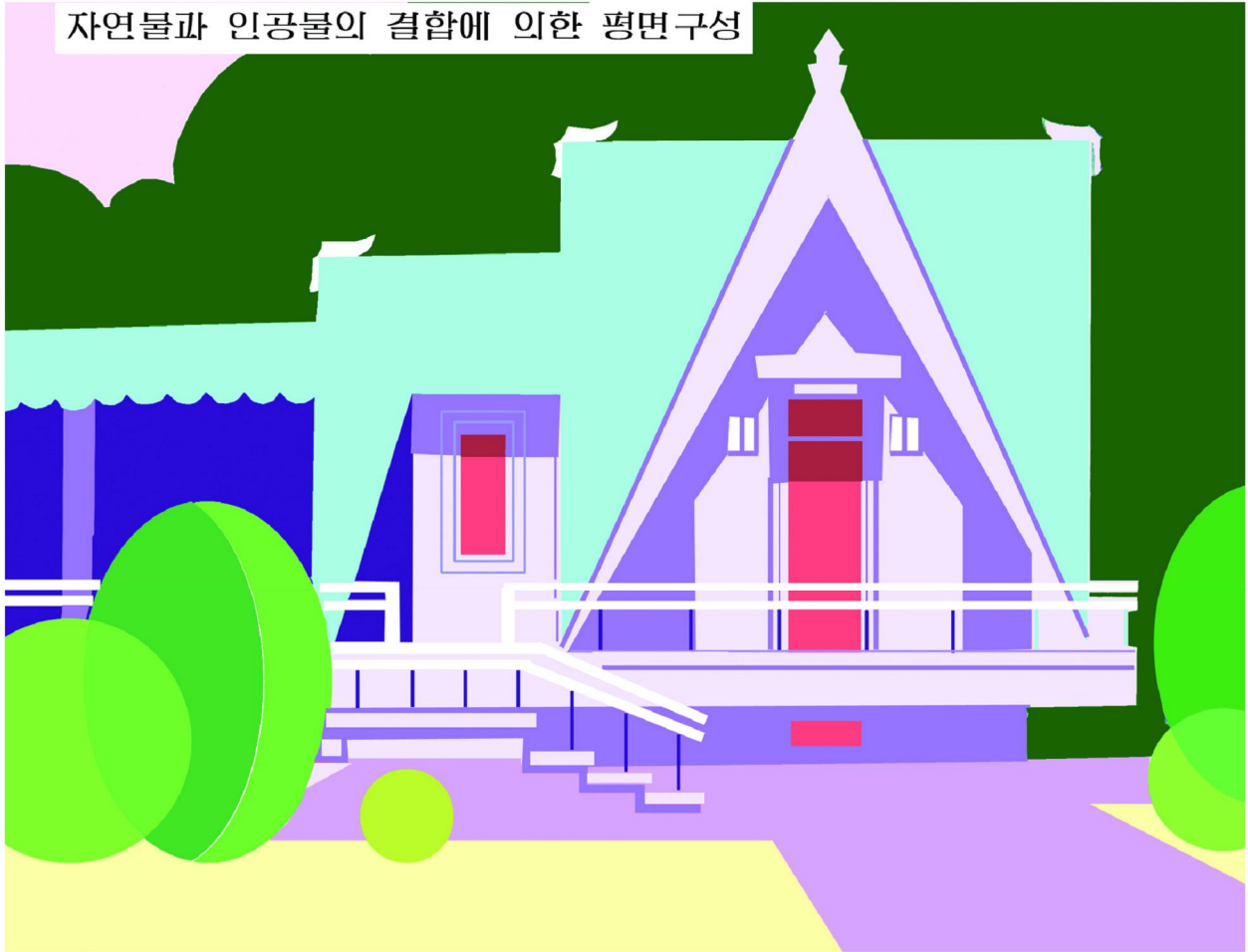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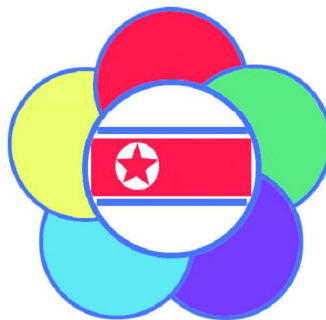
평면구성은 소재에 따라 자연물에 의한 평면구성과 인공물에 의한 평면구성으로 할 수 있다.

자연물에 의한 평면구성

사슴

《사슴》에서는 자연물인 사슴, 나무, 잎의 형태와 색을 단순하게 하여 균형이 이루어지게 구성하였으며 《수박》에서는 수박을 단순화하여 률동적으로 구성하였다.

수박

인공물에 의한 평면구성

탁구채와
탁구공

연필

자연물과 인공물의 결합에 의한 평면구성

마크도안

안내도

안내도는 생활에 편리하게 쓰일뿐아니라 생활을 즐겁게 꾸며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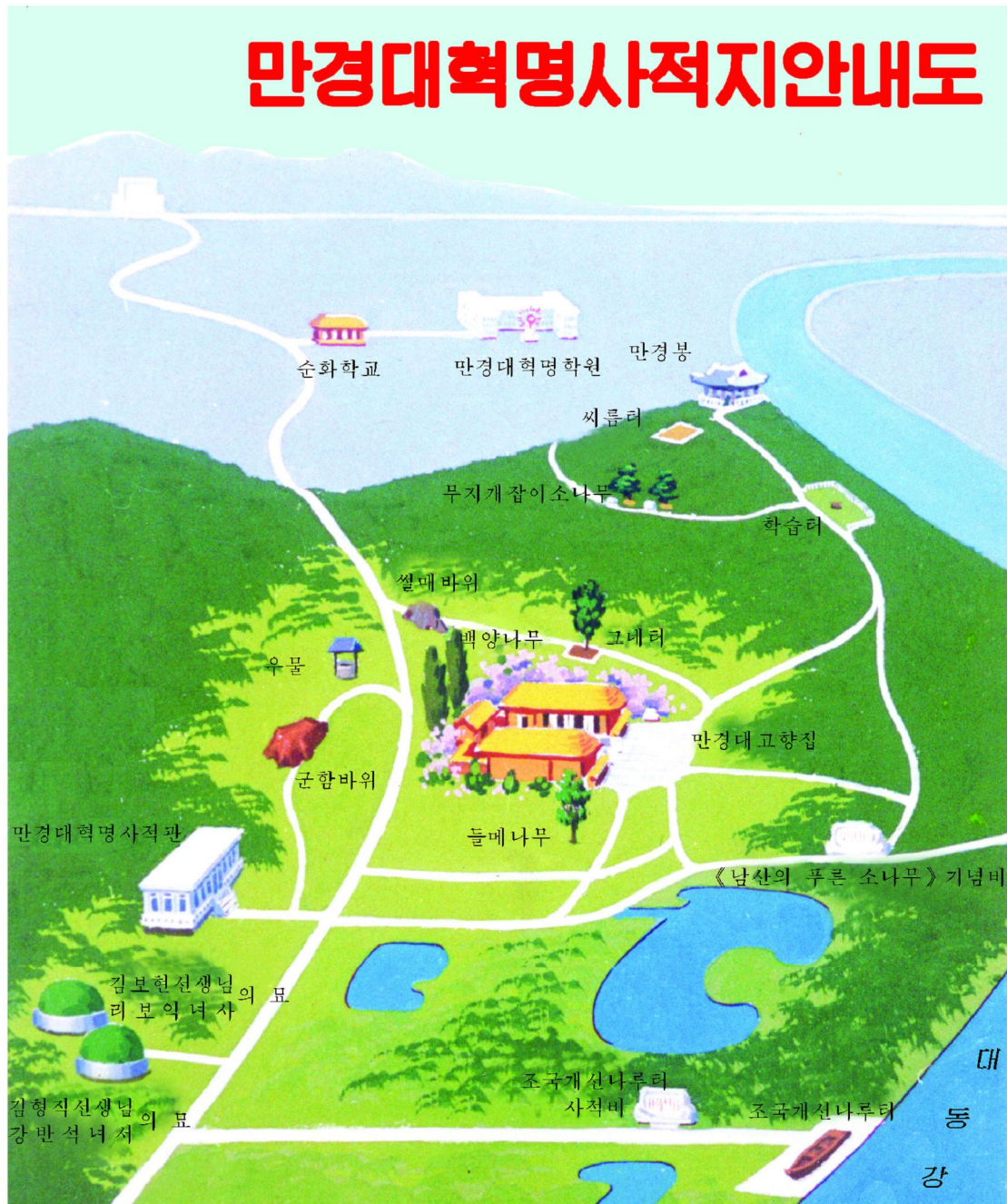
혁명전적지나 혁명사적지, 공원과 유원지, 우리 학교의 위치를 안내도로 재미나게 그려야 한다.

안내도는 남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대상의 생김새와 색갈, 위치가 정확히 표현되여야 한다.

안내도는 또한 문화적으로 되여야 한다. 안내도를 볼품없이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

만경대혁명사적지안내도

백두산혁명전적지안내도
두 만 강
무포
신사동
신개척
대홍단
삼지연
백두산밀영고향집
베개봉
건창
청봉
리명수
5호물동
보천보
압 록 강
백두산
붉은바위
대홍단
홍암로동자구
신사동
무포
무봉
대홍단
신개척
백두교
무두봉
대홍단
로동자구
두지바위
소백산
신무성
로동자구
베개봉
(1937)
백두산
밀영
베개봉
(1939)
삼지연(못)
건창
포태리
삼지연
청봉
5호물동
리명수
로동자구
포태로동자구
곤장덕
구시물동
혜산
보천

공 예

판금공예

동판이나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연성이 큰 금속판들은 자르거나 굽히기도 하고 두드려서 늘일수도 있는 성질을 가지고있다.

금속판의 이러한 성질을 리용하여 벽걸이장식품이나 그밖의 판금공예품을 만들수 있다.

엄지닭과 병아리

판금공예의 제작과정

초안을 금속판에 옮겨 그린다.

비둘기

못을 륜곽선에 대고 나무망치로 두드려 그림을 새긴다.

진흙판우에 판을 뒤집어놓고 륜곽선안을 나무망치로 두드려 도드라지게 한다.

판을 바로 놓고 반듯하게 정리한다.

김일성화장식꽃병(1992년)
리순찬, 리석호 작

토끼

금붕어

눈속에 핀 만병초무늬장식꽃병
(1980년) 집체 작

단벗무늬과일다반(1988년) 조성준 작

초물공예

왕골이나 갈, 싸리, 버들가지, 삼, 오사리 등을 가지고 만드는 공예를 **초물공예**라고 한다.

방석(오사리)

강냉이오사리방석만들기

①

②

③

④

① 오사리로 날줄을 꼰다.

② 날줄을 틀에 메운다.

③ 날줄사이로 오사리를 엮는다.

④ 틀을 뽑은 다음 날줄을 마무리하여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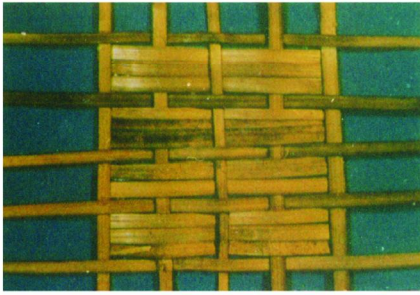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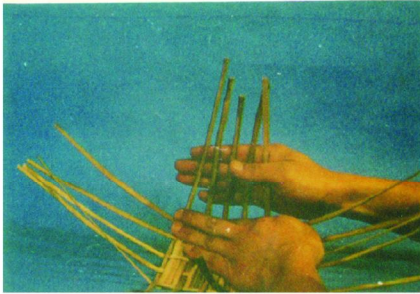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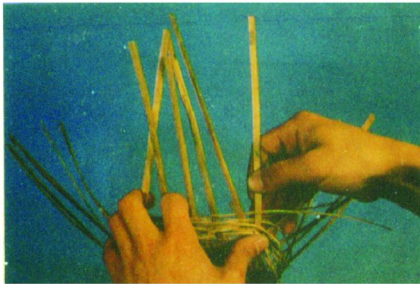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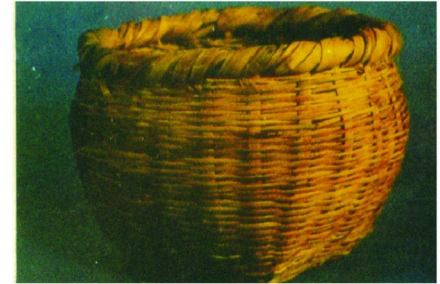
구럭(오사리)

초물공예는 그 어디에서나 재료를 구하기 쉽고 누구나 만들수 있으므로 먼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보급되여온 전통적인 민속공예의 한 종류이다.

바구니만들기

①

②

③

① 물에 불구어 부드럽게 만든 참대(버들)살날을 사진과 같이 밑창을 엮는다.

② 등허리날살들을 우로 구부려 올린다.

③ 두오리의 살날로 엮어나가다가 4~5회 엮은 다음 모서리날살을 끼우고 엮는다.

④ 엮어나가면서 모양을 곱게 바로잡는다.

⑤ 마무리한 다음 약한 불로 거스름을 태운다.

⑥ 완성한다.

④

⑤

⑥

서 예

뜻이 깊고 균형이 잡혀 보기 좋은 붓글씨를 반흘림체로 쓰자.

글씨가 조화롭고 균형이 잡히려면 자모의 비례와 위치, 획의 굵기, 글자폭과 높이가 잘 설정되여야 한다.

단어와 문장을 쓰는데서는 글줄맞추기를 잘하여야 한다.

▨ 획의 굵기

붓글씨를 쓸 때에는 글자의 크기에 비한 획의 크기를 잘 설정하여야 한다.

미래의주인

▨ 글자의 폭과 높이

일반적으로 기둥획, 바깥획, 짧은 획은 다른 획보다 굵게 한다.

가로 긋거나 내려긋는 획이 많아질수록 글자의 폭과 높이는 커진다.

▨ 자모의 위치

붓글씨를 쓸 때에는 단어나 문장을 이루고있는 글자들의 모양이 다양하므로 어떻게 쓰면 보기 좋겠는가를 가늠해가며 써야 한다.

진달래꽃 방긋웃는 새봄인가요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인가요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은
나를안아 키워준 어머닙니다

6학년구반 박 순희

우의 서예작품에서는 글뜻에 맞게 글씨체를 잘 선정하여 썼다.

주체

번영하라 내나라 내조국

해바라기

별

300만총폭탄

감 상

강선의 저녁노을

강선의 저녁노을(조선화 1973년) 정영만 작

강선의 저녁노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을 보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모습을 풍경화 형식으로 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 아니 온 나라 로동계급의 불타는 기상인양 붉게 타는 저녁노을…

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대동강반 저 멀리 우리 주체공업의 위용을 자랑하며 거연히 솟아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화가는 작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가.

이 그림은 조선화의 전통적인 기법들인 우림법과 몰골법을 배합하여 그렸다.

옹천의 파도

《옹천의 파도》는 애국적인민들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침략자들을 바다속에 처넣은 옹천의 바다가풍경을 그린것이다.

선묘법으로 활달하고 힘있게 내리그은 웅장한 바위, 쿡쿡 찍어 간결하게 처리한 바위우의 키낮은 소나무, 가로 빗살치듯 그은 파도는 하나같이 억세고 시원한 느낌을 안겨준다.

옹천의 파도(조선화 18세기) 정선 작

정선은 1676년부터 1759년까지 활동한 18세기의 이름난 화가이다.

그는 조국의 자연과 인연이 없는 그림을 그려오던 당시 풍경화가들과는 달리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현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그리였다. 정선의 풍경화에서부터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지명이 붙게 되였다. 그의 그림에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이 철길은 이어져야 한다(유화 1975년) 황태년 작

금강산(조선화 1984년) 정영만 작

백두산천지의 번개(조선화 1998년) 김성민 작

미술에 대한 일반적지식

미술의 종류

미술은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미술의 종류는 생겨난 처음부터 몇가지로 고정되여있은것이 아니다. 미술의 여러 종류와 형태들은 미술의 오랜 발전과정에서 생겨나고 변화되였다. 례하면 영화미술은 산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영사기가 발명된 뒤에 생겨난 미술형식이다.

미술은 회화, 조각, 출판미술, 공예, 건축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 산업미술, 서예로 나눈다.

회 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회화는 선, 색채, 명암과 같은 표현수단에 의한 조형적형상을 통하여 현실을 그려내는 미술의 한 분야이다.》

회화는 선, 색채, 명암과 같은 표현수단으로 자연이나 인간생활을 그려내는 그림을 말한다. 회화는 그 사명, 묘사대상, 재료와 기법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눈다.

회화는 사명에 따라 일반회화와 기념비회화로 나눈다. 일반회화는 조선화 《북만의 봄》과 같이 박물관이나 공공건물, 가정들에 걸어놓고 감상할수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기념비회화는 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고착시켜 큰 화폭으로 형상한 그림으로서 감상의 기능도 수행하고 건축물의 예술성도 높여준다.

여기에는 평양지하철도벽화와 같은 벽화, 전경화, 반경화가 속한다.

북만의 봄(조선화 1966년) 정창모 작

평양지하철도벽화(부분) 만수대창작사 집체 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의 전경화 《대전해방작전》은 기념비회화의 대표작으로 된다.

회화는 묘사대상에 따라서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화조화로 나누며 지역적 및 민족적특성에 따라 동양화와 서양화로 나눈다. 동양화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그리는 회화인데 조선화, 중국화, 일본화 등으로 나누인다.

조선화는 우리 민족회화로서 회화의 기본형식으로 되고있다.

회화는 또한 표현재료와 기법에 따라 조선화, 유화, 수채화, 뗌베라화, 파스텔화, 조선보석화 등으로 나누인다.

조 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각은 돌, 금속, 나무, 석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묘사대상을 립체적모습으로 돋구어내는 조형예술형식이다.》

조각은 돌, 금속, 나무, 석고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묘사대상을 립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미술의 한 종류이다.

조각은 사명에 따라 기념비조각(《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과 일반조각(《새날은 온다》)으로, 표현형식과 기법에 따라 환각과 부각으로 나누며 만든 재료에 따라 돌조각, 금속조각, 나무조각, 석고조각으로 나눈다. 그리고 묘사대상에 따라 인물조각과 동물조각으로 나눈다.

기념비조각은 우리나라 현대조각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1960년대초에 세워진 《천리마동상》은 우리 나라 기념비조각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승리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조각)

새날은 온다
(나무조각 1987년) 장철, 김락금 작

지난 수십년간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만수대기념비》, 《왕재산기념비》, 《삼지연기념비》 등 수많은 기념비적조각작품들이 창작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있다.

출판미술

출판미술은 출판인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여러 갈래의 미술형태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선전화, 판화, 삽화, 아동화가 속한다.

선전화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의의있는 현상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다. 선전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보수주의, 소극성을 불사르라!》와 같은 선전화작품들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판화는 나무나 비닐판, 동판 등에 그림을 새겨 찍어낸 그림을 말한다. 판화는 한번에 많은 량을 찍어낼수 있으며 기동적으로 보급할수 있다.

선전화(1959년) 곽흥모 작

장편소설 《새봄》의 표지와 삽화 박영갑 작

삽화란 책의 내용과 품위를 시각적으로 돋구어주는 출판미술의 한 형태를 말한다. 삽화는 장편소설 《새봄》의 삽화와 같이 문학도서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아동화는 어린이들의 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는 출판미술의 한 형태이다.

공 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예는 인간의 창조적지혜와 재치있는 솜씨를 보여주는 세공예술이다.》

공예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기물들과 장식품들을 수공업적으로 만들어내는 미술의 한 형태이다. 공예는 재료를 다루는 사람의 섬세하고 정교한 손재주에 의하여 창조되는 예술이다.

공예의 예술성은 실용성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공예의 종류에는 도자공예, 금속공예, 초물공예, 뼈뿔공예, 나무공예, 유리공예, 돌공예, 수예 등이 있다.

도자공예

수예

도자공예는 공예가운데서도 력사가 가장 오랜 공예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도자공예가 발전하였는데 특히 고려상감청자기나 리조청화백자기는 세상사람들이 보물로 여기고있다. 오늘도 우리 나라의 도자공예는 선조들의 우수한 전통을 훌륭하게 계승발전시키고있다. 수예는 실과 바늘로 천일용품과 의상을 장식하며 현실세계를 회화적으로 형상하는 공예형식이다.

건축미술

건축미술은 건축물을 미적으로 조형화하는 미술의 특수한 종류이다. 건축미술은 건축물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보장하는데 바쳐지는 미술로서 여기에는 건축구성미술과 건축장식미술이 포함된다.

건축구성미술은 건축의 내용과 주위환경에 맞게 전반적인 형태와 색갈을 고안하는 미술이다. 그리고 **건축장식미술**은 건축을 미술적으로 조형화하는 미술로서 조각이 기본으로 되면서 그림과 그밖의 여러가지 형식들이 리용된다.

연극무대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

영화 및 무대미술은 분장, 의상, 소도구, 장치 같은것으로 영화화면과 무대우에서의 인물의 성격을 돋구고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미술이다. 배우의 연기와 음악, 무용동작을 제외한 화면이나 무대우의 모든 형상은 다 영화미술이나 무대미술의 창조물이다.

산업미술

산업미술은 공업제품과 생활환경을 미술적으로 만들고 꾸리기 위한 도안을 앞세워주는 미술이다. 산업미술은 사람들의 생활상요구와 물질생활에 대한 미적요구를 실현시켜주는데 이바지한다.

산업미술에는 공업미술, 의상미술, 방직미술, 상업미술이 있다.

공업미술

의상미술

서 예

서예는 뜻과 획을 가지고 예술적형상을 창조하는 미술의 한 종류이다. 서예는 하나의 글자, 한개의 단어, 짧막한 문장으로 큰뜻, 심오한 사상을 나타내며 그것이 글과 함께 정서적으로 안겨오는 뜻과 획의 예술이다. 서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나라들에서 발전하여온 독특한 예술형식이다.

방직미술

미술 (중학교 제2학년용)

제2판

집 필 부교수 김성호, 부교수 리국진, 홍파, 고용국, 김병오, 장영남, 리건일, 김건사, 안영수, 김정중

심 사 심의위원회

편집 및 콤퓨터편성 리영환

장 정 서경애

교 정 한순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외국문출판사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91(2002)년 10월 15일

2판인쇄 주체101(2012)년 6월 11일

2판발행 주체101(2012)년 6월 21일

교-12-보-702

값 20 원